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o.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www.webkam.org/journal

한미목회연구소
다리놓는사람들
*Building bridges
in all communities*



**KOREAN
AMERICAN
MINISTRIES**

WWW.WebKAM.org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Journal of Korean American
Ministries & Theology*

Number 4
2011

**Korean Preachers &
Worship Leaders**

Editor and Publisher

Paul Junggap Huh, Ph. D.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Decatur, Georgia

Editorial Associate

Daniel Adams
Decatur, Georgia

Advisory Board

Korean-American Professors in
Association of Theological Schools
(ATS)

For any questions, subscription, and
articles please contact:

Tel. 404-687-4538

E-mail: huhp@ctsnet.edu

Copyright©2011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journal may be reproduced in any form
without written permission from the
publisher, Korean American Ministries
at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COLUMBIA THEOLOGICAL SEMINARY

Korean American Ministries

701 S. Columbia Dr.

P.O. Box 520

Decatur, Georgia 30031

www.webkam.org

Sun Hee Kwak **곽선희**

Hee Chang Kang

Abstract

Rev. Sunhee Kwak is one of the greatest preachers in Korean church history. To him, the sermon is witness of Jesus and proclamation of Jesus' salvation. He emphasizes incarnation of the Word of God. He says that the duty of the preacher is to reinterpret God's Word in today's context.

He has a fundamental and evangelical understanding concerning the Scripture. Therefore, he has four tools of hermeneutics. The first is providence of God. His preaching is always optimistic because he expresses God's goodness and faithfulness in his sermon. Secondly, the eschatological approach is acceptable to everyone. Nobody can escape from this theme. So, this is a very powerful and evangelical tool for his sermon. He also emphasizes the significance of Jesus' parables because most of Jesus' teachings were given through story. Finally, the center of his preaching is Jesus.

His theology of worship revealed in his sermons is also biblical. The most common and significant thing in worship is to have God's perspective. By having God's view, Christians can acknowledge their true identity and discern God' calling for the world. In this sense, worship i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thing. Rev. Kwak is saying that worship is the fundamental and central thing. So, every Christians need to devote their lives to practice the life of worshi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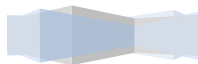
들어가는 말

서울 강남에 소망교회¹를 개척하고, 지금은 원로목사로 추대된 곽선희 목사는 현존하는 최고의 설교가이며, 한국교회 설교사에서 일가를 이루었다고 할만한 목회자이다. 그는 자타가 인정하는 이 시대 최고의 설교가이다. 그는 자신의 목회의 첫째 강점을 설교라고 자인한다.² 또한 민경배는 곽선희 목사에 대하여 “한국교회가 그 역사 백여 년에 걸쳐 그 방불함을 찾기가 힘든 아주 특출한 설교가”³라고 극찬하였다. 그의 설교집은 여러 사람의 각종 설교집이 난무하는 중에서도 최고의 베스트셀러로서의 위치를 확고하게 지키고 있다. 본고에서는 곽선희 목사의 설교관과 설교 방법론, 그리고 그의 설교에 나타나는 예배 신학을 중점적으로 조명해 보고자 한다.

¹ 교회 웹사이트 주소는 다음과 같다: <http://www.somang.net>

² 김신국, “도시복음화는 복음만을 전하려는 목회로써 가능합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월간목회』, 1997년 8월호, 116쪽.

³ 민경배,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신학”,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I』, 한국 교회사학 연구원, 2000, 281쪽.



곽선희 목사의 설교 세계

1. 곽선희 목사의 설교관

곽선희 목사에게 있어서, 설교란 기록된 말씀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다. 설교란 기록된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역사하심에 따라 그리스도의 현존하심과 구원하심을 선포하는 것이다. 따라서, 설교는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해 비판하거나 사회 복지 문제를 거론하는 그런 강연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복음의 선포로서의 설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온갖 명에와 공포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하는 그리스도의 구속 사건을 불러 일으켜야 한다. 이에 대한 그의 언급을 들어보자.

설교란 단순한 종교 강연이 아니며, 성경연구 해설이 아닙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듯이, 오늘도 말씀은 교회와 성례, 그리고 설교를 통하여 계속적으로 성육신(Incarnation)되어,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역사를 나타내고 계신 것입니다. 이 설교는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주시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⁴

2. 설교를 위한 본문해석의 원리

다른 저명한 설교가들과 같이, 곽선희 목사 또한 성경에 대한 확고한 신학적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에게 있어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신앙과 생활에 거룩한 규범이라고 굳게 믿고 있다.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며,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믿는다. 따라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되게 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가 있어야 한다. 그는 “성경은 영감으로 기록된 것이지만, 성령이 기록된 글자와 읽는 이의 마음 사이에서 역사해주지 않으면 어디까지나 하나의 글자에 지나지 않는다”⁵고 분명하게 말한다. 곽선희 목사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있어서, 성경을 해석하는 기본적인 몇 가지 틀을 가지고 있다.

1) 하나님의 섭리사상으로 해석하는 틀

곽선희 목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해석의 틀로 사용하여, 설교를 듣는 이들의 상황에 가장 적절한 구속사적인 메시지를 선포한다. 그는 문제를 문제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손길에 눈을 돌리게 하는 눈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문제를 보는

⁴ 곽선희, [최종 승리의 비결](서울: 계몽사, 1990), 서문.

⁵ 곽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교회와 신학] 제 4 집 (1971), 179.

광선희 목사의 설교자로서의 시각은 언제나 긍정적이고, 복음적이다. 이에 대해 이양호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앙이 광선희 목사의 설교에서 가장 강조되는 주제라고 지적하였다.⁶

2) 종말론적으로 해석하는 틀

광선희 목사의 설교를 특징짓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학적인 틀이 바로 종말론이다. 종말론은 광선희 목사 설교의 중요한 모티브이다.⁷ 종말론적인 메시지에는 보편성이 있다. 종말론적인 주제는 모두에게 다 적용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종말이라는 주제는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하나로 아우르는 놀라운 복음이 접촉점이 된다. 그의 설교집을 보면, 거의 모든 설교집에서 종말과 관련된 제목이 없는 것이 없을 정도로 종말을 강조한다. 우리는 매 순간을 소중한 기회로 삼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으로 가득 채우는 종말론적인 생활의식을 갖고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는 이런 시간을 가리켜 “영원한 오늘”(eternal today)라고 부른다.⁸

3) 비유적으로 해석하는 틀

광선희 목사는 성경 가운데서 복음서가 제일 중요함을 강조한다. 그리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의 말씀”이라고 주장한다.⁹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비유를 바로 이해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로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이라고 생각한다.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이야기들은 요지에 대한 실례가 아니라, 바로 요지 그 자체였다. 사실 성경은 하나님의 이야기(God's Story),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이다.

4)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틀

광선희 목사는 모든 설교는 철저히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설교, 이것이 그가 강조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해석학적인 틀이다. 성경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성경 어디를 보아도 예수님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할 때, 이러한 관점에서 예수님의 얼굴이 가장 밝히 비춰진 부분이 바로 복음서이다. 그래서 광선희 목사는 성경이 다 중요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책이 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장 가깝게 설명하는 복음서라고 말한다.

⁶ 이양호, “광선희 목사의 설교 세계”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1] (서울: 한국교회사학 연구원, 2000), 304.

⁷ 임운택, [소망교회 이야기] (서울: 베드로서원, 2001), 239.

⁸ 광선희, [환상에 끌려간 사람], (서울: 계몽사, 1995), 195.

⁹ Ibid., 116-117.



곽선희 목사의 설교집 32 권을 보면 총 844 편의 설교가 실려 있는데, 그 중에 구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243 편이고, 신약을 본문으로 한 설교는 601 편이다. 그는 설교 본문으로 신약성경을 약 71%, 그리고 구약성경을 29%로 잡고 있다. 신약 601 편 가운데서도 288 편(48%)이 복음서가 본문이다. 이는 곽선희 목사가 그의 말대로 복음서를 얼마나 중요시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이다.

곽선희 목사의 예배관

곽선희 목사의 예배에 관한 신학은 그의 설교만큼은 알려진 바가 없다. 그래서 본인은 확선희 목사의 예배에 관한 6 편의 설교¹⁰를 분석함으로써, 그의 예배 신학을 밝히려 한다.

1. 예배는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다.

이것은 예배에 관한 설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면서도 가장 강조되고 있는 점이다. 곽선희 목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이전에는 세상적인 눈을 갖고 살지만,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도들은 전혀 새로운 세계관을 가지게 된다고 말한다. 즉 세상은 전혀 소망이 없고 절망적인 곳이 아니라, 세상은 하나님께서 주인으로 역사하고 계신 하나님의 역사의 장이다. 하나님의 관점을 갖게 된 성도들은 세상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고백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곽선희 목사가 강조하는 예배에 관한 신학이다.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라는 설교에서, 곽선희 목사는 예배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되는 것은 세 단계를 거치게 된다고 설교한다.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바로 아는 것이 첫 번째 단계이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성도들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비로소 바로 알게 된다. 그리고 난 다음, 성도들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보게 된다. 그렇게 됨으로써, 이 세상에 보내진 이유와 목적을 발견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비로소 하나님과 자신에 대한 지식을 갖게 됨으로써, 세상에 대한 전혀 다른 새로운 세계관을 갖게 된다.

이것에 대해, <두 예배자의 관심>이란 설교에서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문제를 다시 한번 제기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동시에

¹⁰ 6 편의 설교는 다음과 같다. <내가 성소에서 깨달았습니다> 시 73:1-17 (90. 9. 2), <두 예배자의 관심> 눅 18:9-14 (90. 6. 10), <예수의 잠언 48-예배할 때> 요 4:20-24 (92. 4), <예배자의 윤리> 마 5:21-26 (93. 7. 25),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히 10:19-25 (86. 12. 7),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롬 12:1-2 (90. 7. 15)

일어나는 것이라고 설교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바로 이것이 예배라고 정의하면서, 예배에 존재의 의미와 생명의 뿌리가 있다고 설교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2. 예배는 삶에서의 실천을 동반한다.

곽선희 목사의 예배 신학에 두드러지는 또 하나의 강조점은 실천이다. <예수의 잠언 48-예배할 때>라는 설교에서, 그는 예배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종합적 인식”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즉, 우리는 보통 하나님을 머리로만 이해하려고 하거나 혹은 가슴으로만 만나려 하는 경향이 있다고 지적한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는 일에 있어서, 아는 것과 느낌만 아니라 행동으로도 만나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의지적인 신앙만을 강조하는 것은 아니다. 그는 의지적인 부분만 강조하는 신앙은 자칫 율법주의로 흐를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곽선희 목사에게 있어서, 지, 정, 의 모두가 작용하고 만나는 종합적인 만남이 참된 예배이다.

예배는 인격적인 만남의 장이요, 의미 있는 만남, 인격과 인격이 만나는 시간이다. 따라서, 예배는 신비 그 자체이다. 사람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예배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찾아 오시는 것이 예배이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임재에 반응하는 것이 예배이다.

3. 예배는 삶을 온전히 드리는 것이다.

곽선희 목사는 <두 예배자의 관심>이란 설교에서, “간구는 예배가 아니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한다. 그는 가스펠송과 찬송가를 엄격히 구분하면서, 예배는 온전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지, 예배를 통해, 물질적이든, 영적이든, 정서적이든, 어떤 모양이든지 간에, 보상을 얻고자 하는 것도 예배자의 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설교한다. 따라서, 곽선희 목사는 하나님께 공로를 세워서 복을 얻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을 예배에서 엄격히 제한한다. 가령, 기도 오래 한다고 해서, 크게 소리 낸다고 해서, 혹은 금식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 공로로 복을 얻는 것도 아니며, 그러한 행위들이 예배에 들어와서도 안된다는 것이 곽선희 목사의 예배관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곽선희 목사는 이방 종교의 방법으로 나아가서는 안된다고 강조한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신 방법대로, 인간적인 방법이 아니라, 나분위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드려야 한다. 예배는 믿음, 감사, 순종으로 응답하는 행위라고 설교하는 곽선희 목사는 “진실을 드리라! 재물을 드리되,

마음으로부터 드리라! 우리의 헌금, 봉사, 헌신이 모두 진실한 예배 그 자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4. 예배는 모든 신앙 생활의 가장 우선되고 중심이 되는 축이다.

종말론적인 신앙을 강조하는 콕선희 목사는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 드리기를 힘쓰는 삶이 종말론적 신앙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라고 말한다.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이란 설교에서, 콕목사는 예배 없이는, 전도도 봉사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한다. 왜냐하면, 예배가 모든 신앙 생활의 가장 우선이며 중심이고,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무엇이든지 자꾸 만나고, 자꾸 듣고, 자꾸 먹으면, 별로 좋아하지 않던 것도 좋아지게 마련이라고 말하는 그는 “예배함에 있어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싫어졌다면, 더 적극적으로 만나라!”고 권면한다. 왜냐하면, 예배는 인간의 감정과 관계없이 갇아야 할 빛이기 때문이다. 때때로 교회 봉로나 여러 가지 선교적인 일들을 하면서 탈진하는 경우를 보게 된다. 바로 예배에 실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콕목사의 진단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란 설교에서, 콕목사는 예배는 삶을 드리는 것이며,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중심, 목적, 뜻이 제물로 드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참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라고 말하는 그는, 우리가 겪는 빈민, 고뇌, 어려움들이 아직도 우리 자신 전체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지적은 비단 개개인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보다는 프로그램이나 다른 것들에서 교회의 성장과 성도들의 성숙을 추구하는 많은 목회자들에게 울리는 경종이라고 생각한다.

나가는 말

콕선희 목사의 설교는 복음적이면서도 신학적이다. 그의 설교관을 한 마디로 말한다면 ‘설교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며, 이 복음은 그리스도 중심주의이며, 이 그리스도는 2 천년 전의 화석화된 그리스도가 아닌 오늘 살아 계신 케리그마적 그리스도이다’라는 것이다. 그의 설교의 본질이 인본주의적 신학을 배격하는 예수 그리스도 중심적인 십자가와 부활과 종말을 강조하는 ‘성서적 경건주의’를 지향한다.¹¹

콕선희 목사의 설교에 나타난 예배 신학 또한 상당히 성경적이다. 예배에 관한 설교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예배란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 것”이란 점이다. 이것을 갖게 될 때, 성도들은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로

¹¹ 콕요셉, 『새 세대의 목회를 위한 교회성장원리』, 소망교회 성장원리를 중심으로, 서울프레스, 2000, 88 쪽 이하 참조

깨닫고 살 수 있다. 따라서, 예배는 성도들에게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곽선희 목사는 예배는 모든 신앙 생활의 가장 우선되고 중심이 되는 축이라고 말하고 있고,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러서, 예배자의 삶을 실천하라고 권면한다.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예배를 분석해 보면, 전혀 새로운 무엇이 있는 것이 아님을 알게 된다. 너무나 뻔한 것이지만, 오로지 성경에 충실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닫게 된다. 그의 현란한 수사학이나 다방면에 걸친 그의 지식이 회중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요인이긴 하지만, 그것이 그의 설교의 전부는 아니다. 오히려, 성경과 현실에 같은 비중을 두고,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선포하는 그의 설교자로서의 자세가 바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Primary Resources:

- 곽선희, [최종 승리의 비결], 서울: 계몽사, 1989.
 곽선희, [환상에 끌려간 사람], 서울: 계몽사, 1995.
 곽선희, “어떻게 설교할 것인가?”, 『영혼을 울리는 설교 개발』, 서울: 도서출판 서로사랑, 1997.
 곽선희,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서”. 『교회와 신학 제 4 집』, 서울: 장신대 출판부, 1971.
 곽선희, “현대 설교의 성공지혜”, 『설교가 살아야 교회가 산다』, 서울: 콤팩출판사, 2002.

Secondary Resources:

- 곽요셉, 『새 세대의 목회를 위한 교회성장원리』, 서울: 서울프레스, 2000
 김홍기, “역사신학적 조명에서 본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신학”,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서울: 한국 교회 사학 연구원, 1998.
 김신국, “도시복음화는 복음만을 전하려는 목회로써 가능합니다: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월간목회』.1997.
 문성모, “곽선희 목사의 설교 서론에 대한 분석과 방법론 연구”. 『신학과 실천』, ????,
 민경배.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신학”.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서울: 한국 교회 사학 연구원, 2000.
 이근미, “조용한 감동을 주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의 설교 연구”, 『월간 조선』, 2000.
 이양호, “곽선희 목사의 설교 세계”, 『한국교회 설교가 연구 I』, 한국 교회 사학 연구원, 2000.
 임윤택, 『소망교회 이야기』, 서울: 베드로서원, 2001.
 정성구, “곽선희 목사의 설교 세계”.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신학』. 서울: 한국 교회 사학 연구원, 1998.
 주승증, “설교학적 관점에서 본 곽선희 목사의 설교와 신학”,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 원로 목사 추대 기념 논문집: 창의적 목회 신학』, 서울: 계몽문화사, 2003 년.